SEOUL ECONOMIC MONITORING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 소비경기지수

2021. Mar

03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인포그래픽

서울 소비경기지수
2021. 3월

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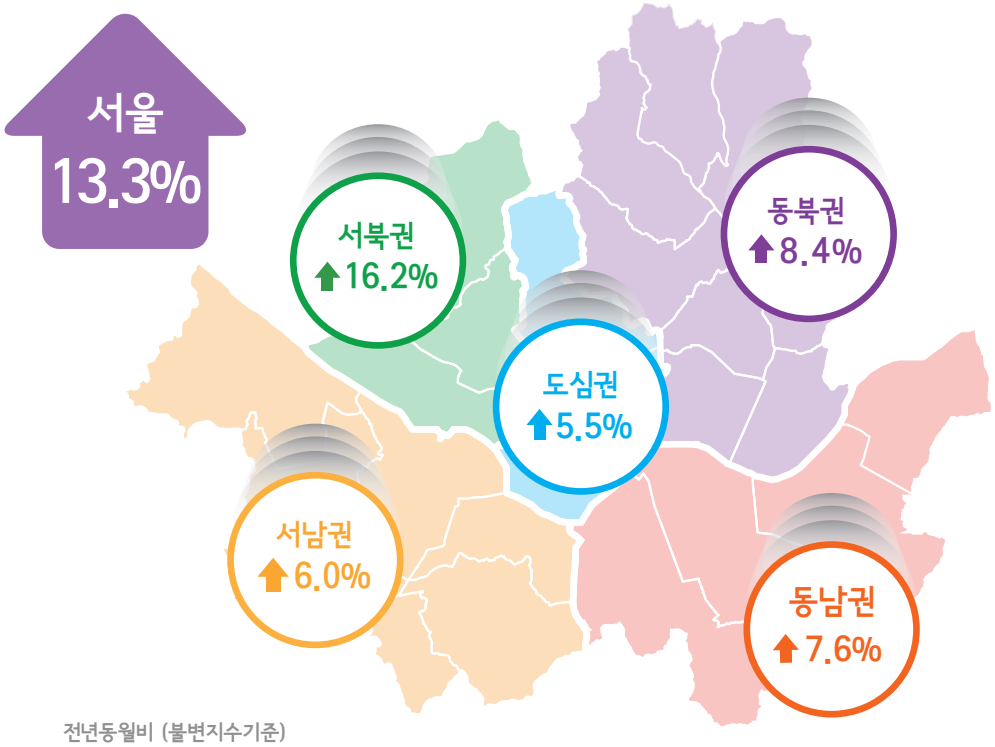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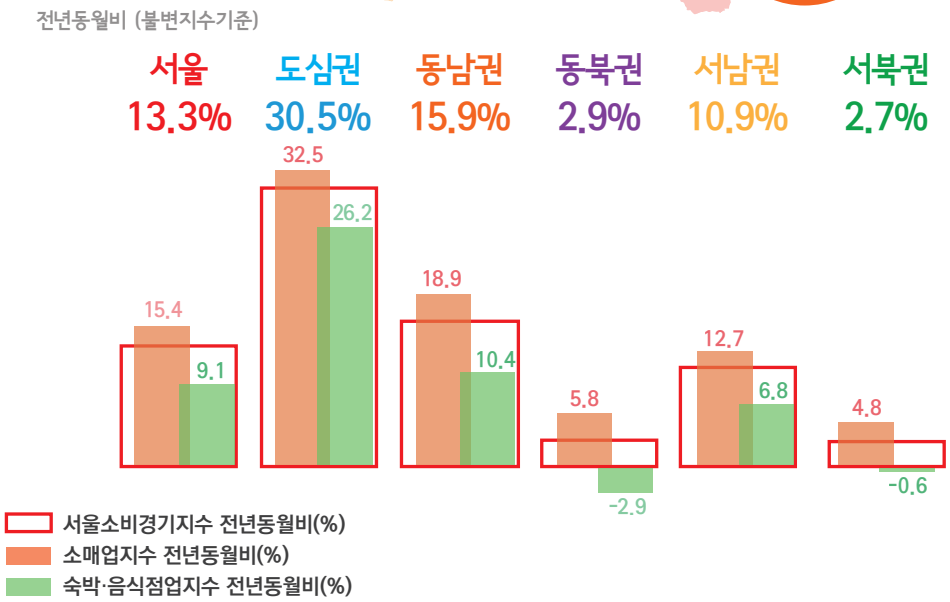
21년 03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3.3% 상승

(불변지수)

서울 전역에서 소비경기지수가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

숙박, 무점포소매, 의복·섬유·신발, 종합소매 등의 업종이 큰 폭으로 증가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카드매출 빅데이터의 가공 · 조정 · 변환을 통해 산출된 지수로 신한카드 원본 데이터의 트렌드와는 차이가있음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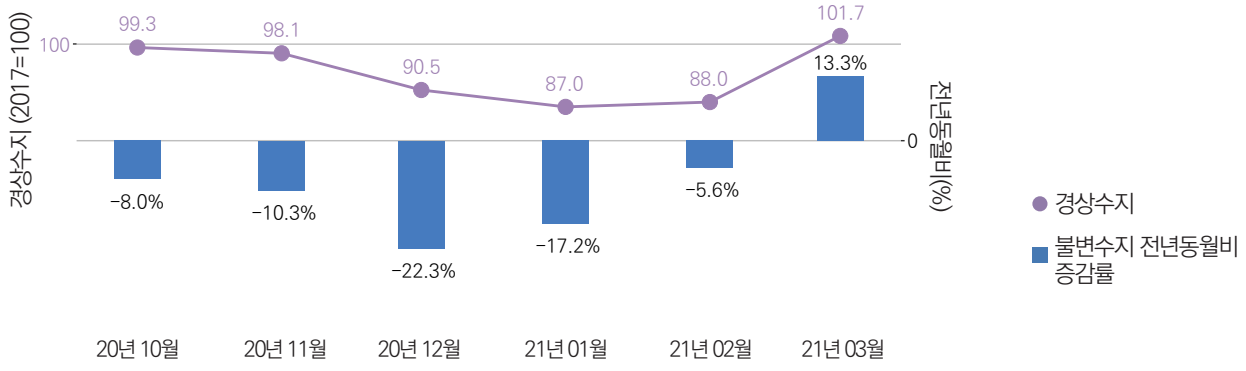
서울 13.3% (101.7) 	• 2021년 3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상승. 전월보다 (전년동월대비) 오름폭이 18.8%p 증가하면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에 성공 – 3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101.7로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에 폭락했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13.3% 상승하면서 극심한 부진에서는 탈피.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1여년만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지만 2019년 3월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9.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코로나19 이전의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임 – 서울 소매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소비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난 1년 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의복·섬유·신발, 종합소매 매출이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면서 (전년동월대비) 14.5% 상승 – 서울 숙박·음식점업도 숙박 매출이 큰 폭으로 오르고, 음식점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면서 (전년동월대비) 9.1% 상승
권역종합 	• 서울의 권역별 소비경기지수는 지난 연말 가장 심한 부진을 나타낸 이후 3월 들어 처음으로 모든 권역에서 소매업이 증가를 나타내면서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에 성공(단, 도심권은 지난 2월부터 상승세) – 도심권·동남권·서남권 : 무점포소매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극심한 부진을 나타냈던 의복·섬유·신발, 종합소매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소매업 상승. 숙박과 음식점도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숙박·음식점업 상승에 기여 – 동북권·서북권 : 다른 지역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종합소매는 하락했지만, 무점포소매, 의복·섬유·신발이 상승하면서 소매업이 소폭 상승. 그러나 숙박·음식점업은 세부 업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다소 하락
도심권 30.5% (106.9)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32.5% 및 숙박·음식점업 26.2% 상승하면서 소비경기지수도 30.5% 상승. 서울 권역 중 가장 큰 폭의 오름세 • 도심권은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숙박·음식점업 세부 업종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 무점포소매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월에 이어 서울 권역 중 가장 큰폭의 오름세를 나타냄
동남권 15.9% (101.4)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18.9% 및 숙박·음식점업 10.4% 상승하면서 소비경기지수도 15.9% 상승 • 동남권은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세부 업종 대부분이 증가를 나타내면서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에 성공(단, 주점·커피전문점, 연료의 매출은 감소)
동북권 2.9% (94.7)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5.8% 상승 및 숙박·음식점업 2.9% 하락하면서 소비경기지수는 2.9% 상승 • 동북권은 의복·섬유·신발, 무점포소매, 가전제품·정보통신 등 일부 업종이 선전하면서 3월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에 성공. 그러나 숙박,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숙박·음식점업 세부 업종이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서울 권역 중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가 가장 부진
서남권 10.9% (103.9)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12.7% 및 숙박·음식점업 6.8% 상승하면서 소비경기지수도 10.9% 상승 • 서남권은 의복·섬유·신발, 무점포소매, 종합소매 등 세부 업종 대부분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에 성공(단, 음식료품, 연료, 기타가정용품, 주점·커피전문점 등 일부 업종의 매출은 감소)
서북권 2.7% (88.2)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4.8% 상승 및 숙박·음식점업 0.6% 하락하면서 소비경기지수는 2.7%상승. 10개월 연속 서울 권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지속 • 서북권은 세부 업종 대부분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복·섬유·신발, 무점포소매, 문화·오락·여가, 기타상품 등 일부 업종만 (전년동월대비) 증가. 숙박·음식점업 중에서는 숙박만 증가를 나타냄. 서북권의 권역별 소비경기지수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에 성공했지만, 10개월 연속 서울 권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지속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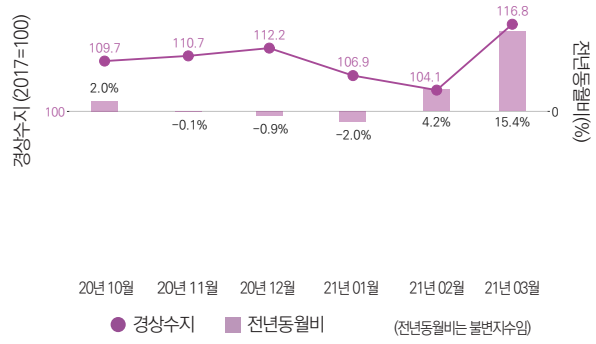
- **3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3.3% 상승, 소매업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에 성공**
  - 전년동월대비 +13.3% = 소매업의 기여도 +10.3%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3.0%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설명은부록의'기여도'참조
  - 3월 서울 소비경기지수의 상승은 소매업 약진에 기인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15.4%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9.1% 상승**
  - 소매업 세부 업종 대부분의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면서 소매업 소비경기지수가 15.4% 상승(단, 연료, 음식료품은 감소). 특히 지난 1년 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의복·섬유·신발(44.0%), 종합소매(10.0%)가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3월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전월(2월, 4.2%)보다 11.2%p 상승
    · 3월 서울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무점포소매, 문화·오락·여가, 기타가정용품, 종합소매, 가전제품·정보통신, 기타상품 순으로 소비증가. 반면 연료, 음식료품 순으로 소비감소
  - 숙박·음식점업은 숙박(64.3%)이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음식점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22.6 ⇨ 5.5%)되면서 3월 서울의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9.1% 상승. 전월보다 오름폭도 큰 폭(-22.5% ⇨9.1%)으로 증가하였으나 주점·커피전문점(-3.5%)의 부진은 지속
    · 3월 서울 숙박·음식점업은 숙박, 음식점 순으로 소비증가. 반면 주점·커피점문점은 소비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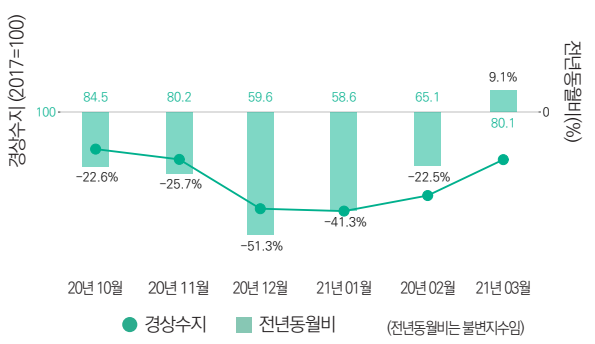
서울 소비경기지수



서울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서울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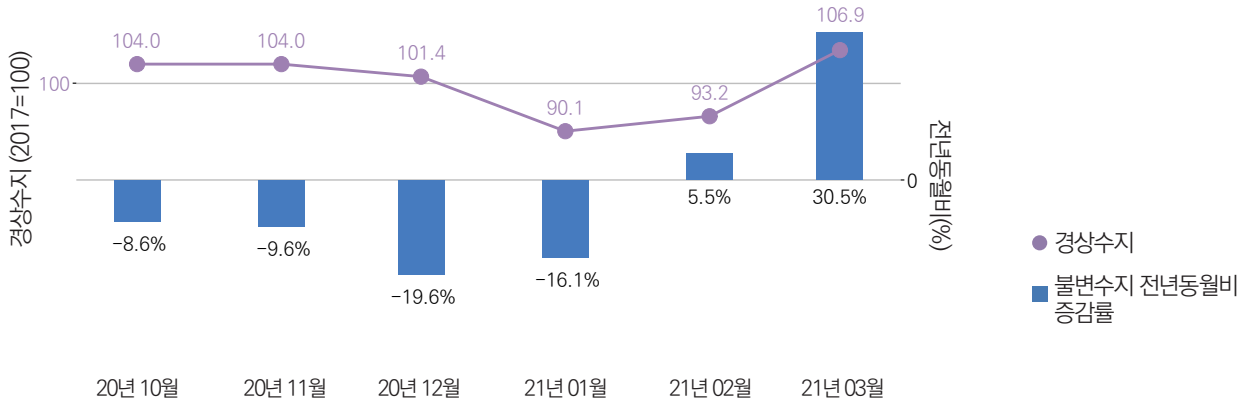


도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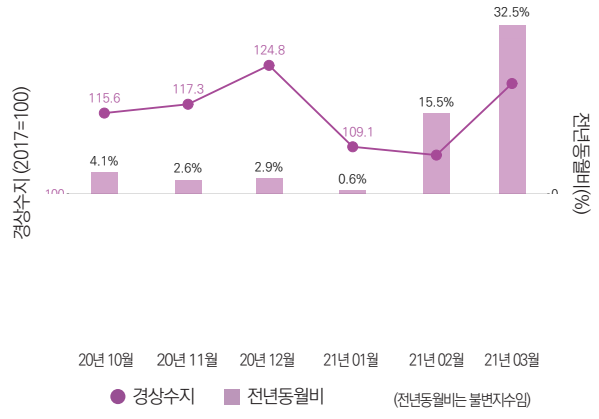
-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0.5% 상승, 서울 권역 중 가장 큰 폭의 오름세**
  - 전년동월대비 +30.5% = 소매업의 기여도 +22.0%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8.4%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32.5%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26.2% 상승**
  - 도심권은 소매업 세부 업종 대부분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했으며(단, 가전제품·정보통신, 연료, 음식료품은 하락), 특히 전월에 이어 무점포소매(80.1%)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권역별 소비경기지수가 서울 권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3월 도심권 소매업은 무점포소매, 의복·섬유·신발, 종합소매, 문화·오락·여가, 기타가정용품, 기타상품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가전제품·정보통신, 연료, 음식료품 순으로 소비감소
  - 도심권은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숙박·음식점업 세부 업종 대부분이 (전년동월대비) 상승. 특히 숙박(96.5%)과 음식점(16.9%)의 (전년동월대비) 오름폭이 서울 권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3월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서울 권역 중 가장 높음
    · 3월 도심권 숙박·음식점업은 숙박, 음식점, 주점·커피전문점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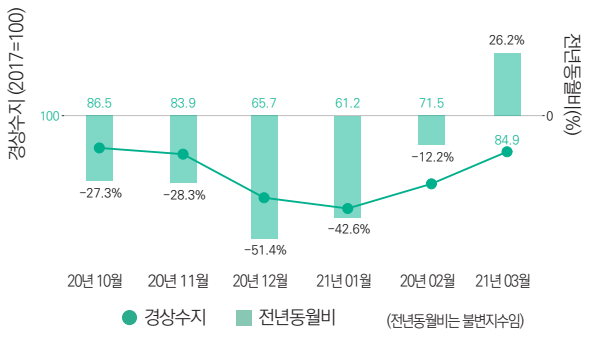
도심권 소비경기지수



도심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도심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동남권

• 동남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5.9% 상승

- 전년동월대비 +15.9% = 소매업의 기여도 +12.3%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3.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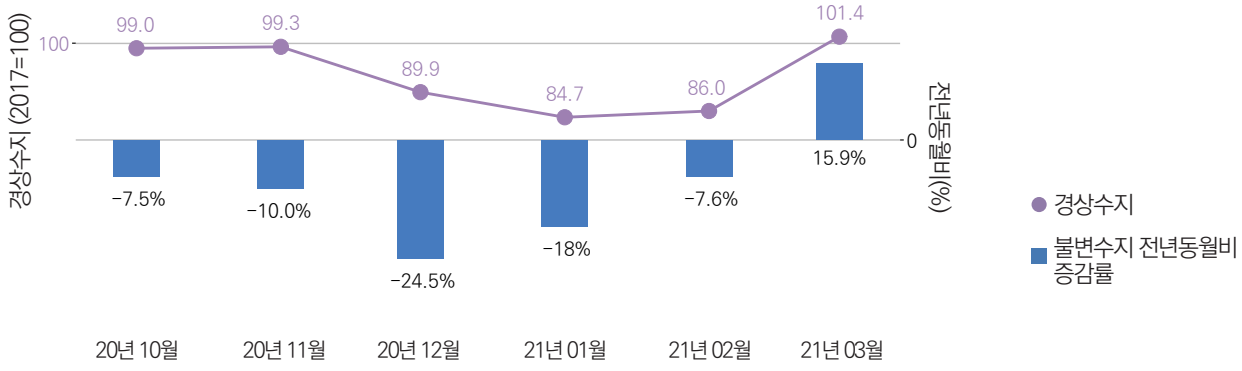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 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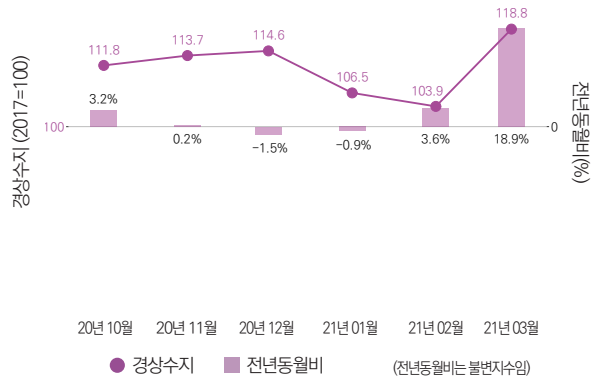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18.9%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10.4% 상승

- 동남권은 무점포소매(18.2%), 종합소매(17.5%) 등 소매업 세부 업종 대부분이 (전년동월대비) 고르게 상승하면서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에 성공(단, 연료, 음식료품은 하락)
  - · 3월 동남권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기타가정용품, 문화·오락·여가, 무점포소매, 종합소매, 기타상품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 반면 연료 등은 소비감소
- 동남권의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숙박(65.9%)과 음식점(7.7%)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하면서 3월들어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에는 성공. 그러나 2020년 12월부터 극심한 부진을 나타냈던 주점·커피전문점(-19.4%)의 부진은 지난 2월부터 내림폭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소비경기 부진은 3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 3월 동남권 숙박·음식점업은 숙박, 음식점 순으로 소비증가. 반면 주점·커피전문점은 소비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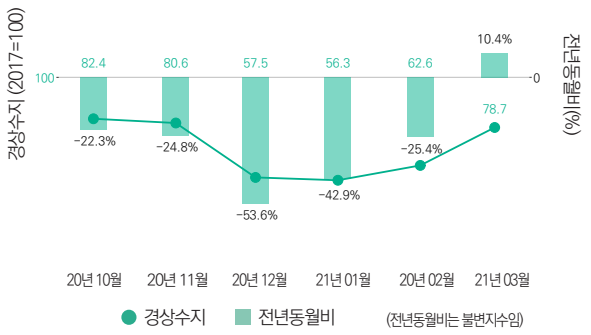
| 동남권 소비경기지수 |



| 동남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



| 동남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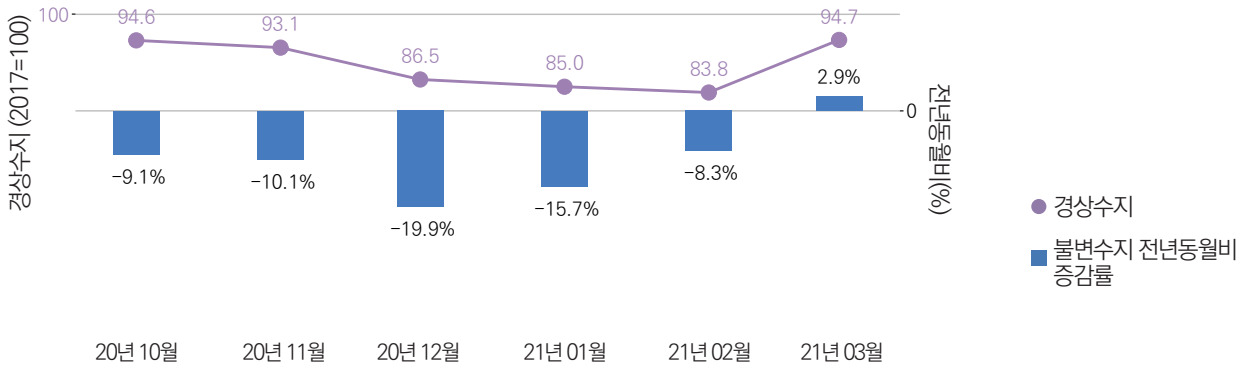


동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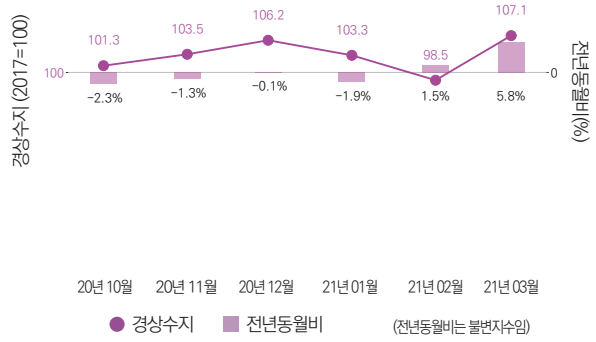
-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9% 상승. 서울 권역 중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가 가장 부진**
  - 전년동월대비 +2.9% = 소매업의 기여도 +3.9%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1.0%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5.8%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2.9% 하락**
  - 동북권은 의복·섬유·신발(34.0%), 무점포소매(19.0%), 가전제품·정보통신(13.9%) 등 일부 업종이 선전하면서 3월 권역별 소비경기지수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에 성공
    · 3월 동북권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문화·오락·여가, 무점포소매, 가전제품·정보통신, 기타가정용품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음식료품, 종합소매, 연료 순으로 소비감소
  - 그러나 숙박(-6.5%), 주점·커피전문점(-4.5%), 음식점(-2.2%) 등 숙박·음식점업 세부 업종이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서울 권역 중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가장 부진
    · 3월 동북권 숙박·음식점업은 소비증가 업종 없이 숙박,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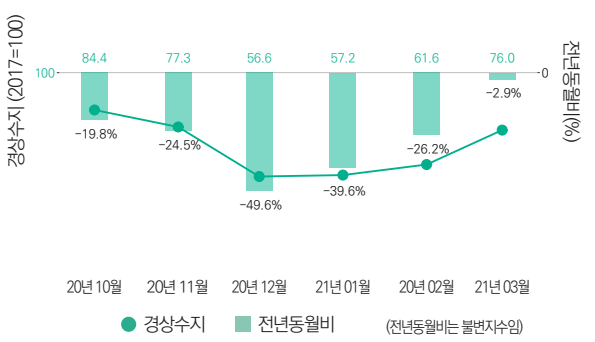
동북권 소비경기지수



동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동북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서남권

• 서남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0.9% 상승

- 전년동월대비 +10.9% = 소매업의 기여도 +8.7%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2.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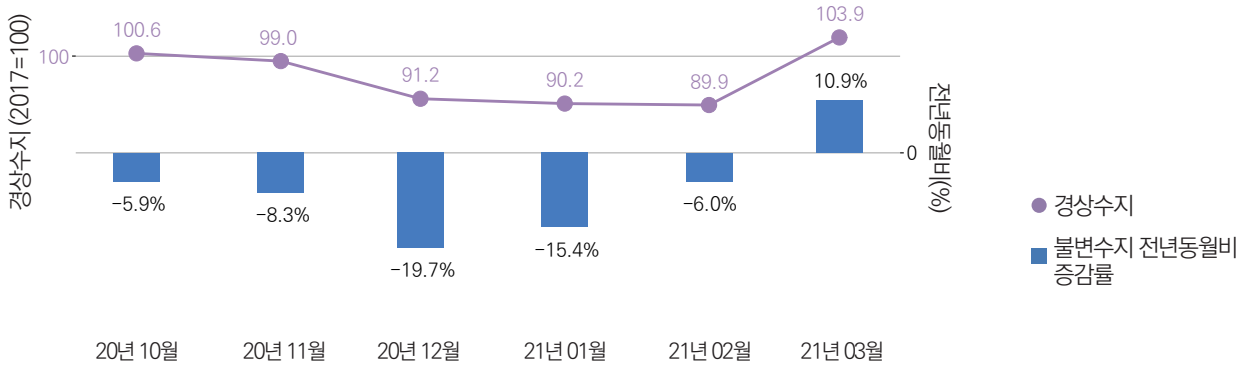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설명은부록의'기여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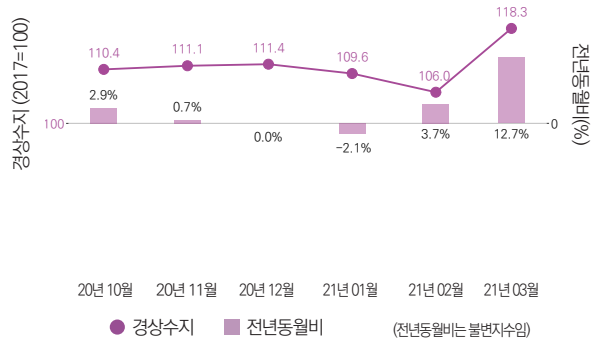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12.7%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6.8% 상승

- 서남권은 의복·섬류·신발(50.7%), 무점포소매(20.0%), 종합소매(9.6%) 등 세부 업종 대부분의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면서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에 성공(단, 음식료품, 연료, 기타가정용품 등 일부 업종의 매출은 감소)
  - · 3월 서남권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무점포소매, 문화·오락·여가, 가전제품·정보통신, 종합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 반면 연료, 음식료품, 기타가정용품 순으로 소비감소
- 서남권의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8.0%)의 부진은 지속되었지만, 숙박과 음식점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 · 3월 서남권 숙박·음식점업은 숙박, 음식점 순으로 소비증가. 반면 주점·커피전문점은 소비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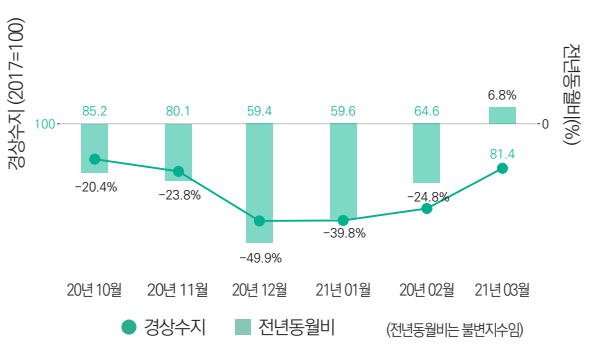
| 서남권 소비경기지수 |



| 서남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



| 서남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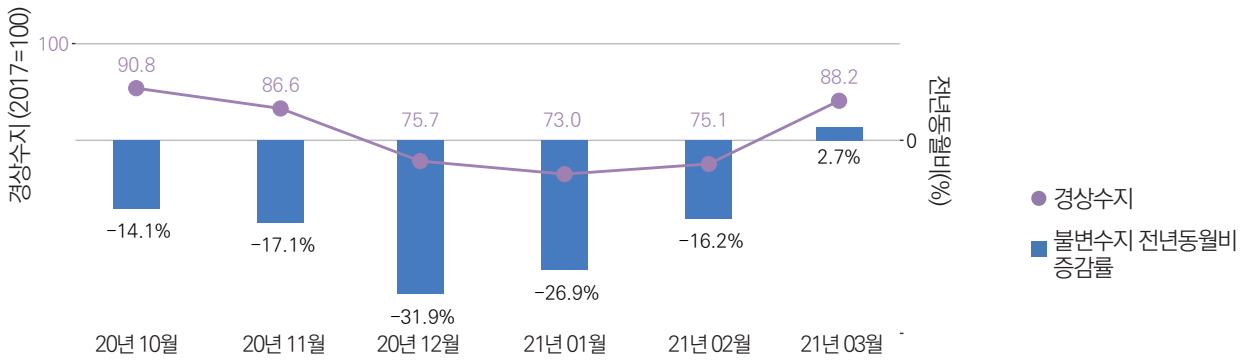


서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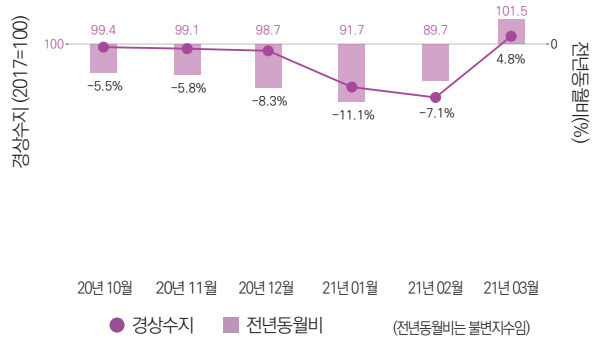
-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7% 상승, 그러나 10개월 연속 서울 권역 중 소비경기지수는 가장 낮은 수치를 지속**
  - 전년동월대비 -16.2% = 소매업의 기여도 -4.1%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12.1%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관련 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4.8%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0.6% 하락**
  - 서북권은 소매업 세부 업종 대부분에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복·섬유·신발(25.2%), 무점포소매(23.3%), 문화·오락·여가(13.7%), 기타상품(3.4%) 등 소매업 세부 업종 일부만 (전년동월대비) 증가. 3월 서북권의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에 성공했지만, 10개월 연속 권역별 소비경기지수는 서울 권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지속
    · 3월 서북권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무점포소매, 문화·오락·여가, 기타상품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가전제품·정보통신, 음식료품, 기타가정용품, 연료 등의 순으로 소비감소
  - 서북권의 숙박·음식점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숙박(11.4%)만 (전년동월대비) 증가를 나타냈으며, 음식점(-0.3%)과 주점커피전문점(-4.3%)의 부진은 지속
    · 3월 서북권 숙박·음식점업은 숙박만 소비증가. 반면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순으로 소비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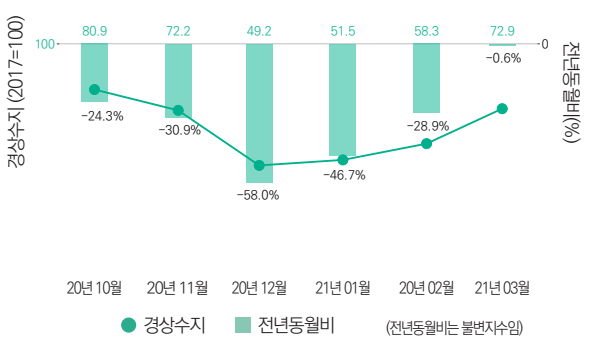
| 서북권 소비경기지수 |



| 서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



| 서부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



통계표

년도	월	서울소비경기지수											
		서울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2020년	10월	99.3	96.6	104.0	102.0	99.0	96.3	94.6	91.8	100.6	97.8	90.8	88.2
	11월	98.1	95.6	104.0	102.2	99.3	96.7	93.1	90.6	99.0	96.4	86.6	84.2
	12월	90.5	88.2	101.4	99.7	89.9	87.4	86.5	84.2	91.2	88.6	75.7	73.7
2021년	01월	87.0	84.1	90.1	88.1	84.7	81.8	85.0	81.9	90.2	86.9	73.0	70.4
	02월(p)	88.0	84.5	93.2	90.6	86.0	82.5	83.8	80.2	89.9	86.1	75.1	71.9
	03월(p)	101.7	97.4	106.9	103.6	101.4	97.0	94.7	90.3	103.9	99.3	88.2	84.2

p : 잠정치

기여도

[단위 : %p]

구분	서울소비 경기지수 (21.03월)	소매업 (21.03월)	종합소매	음식료품	가전제품 ·정보통신	의류· 섬유·신발	기타 가정용품	문화· 오락·여가	연료	기타상품	무점포 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21.03월)	숙박	음식점	주점· 커피전문
서울	13.3	10.3	1.9	▽0.2	0.4	2.4	0.3	0.4	▽0.1	0.5	4.7	3.0	1.9	1.3	▽0.2
도심권	30.5	22.0	6.3	▽0.1	▽1.5	2.8	0.3	0.4	▽0.1	1.1	12.8	8.4	4.3	3.5	0.6
동남권	15.9	12.3	2.9	▽0.1	0.0	3.7	0.9	0.6	▽0.2	0.6	3.7	3.6	2.6	2.0	▽0.9
동북권	2.9	2.9	▽1.0	▽0.3	0.9	1.2	0.3	0.5	▽0.1	0.1	2.2	▽1.0	▽0.1	▽0.6	▽0.3
서남권	10.9	8.7	1.7	▽0.4	1.0	2.2	▽0.1	0.3	▽0.2	0.2	4.1	2.1	1.3	1.2	▽0.4
서북권	2.7	2.9	▽0.4	▽0.3	▽0.9	1.0	▽0.1	0.2	▽0.1	0.5	3.0	▽0.2	0.2	▽0.1	▽0.4

주 기여도는 하위구성요소의 변동이 종합지수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지역별 하위구성요소의 기여도 합은 지역별 종합지수의 전년동월 증감율과 동일합니다.
주의, 기여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므로 하위구성요소의 합이 종합지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분류 및 지수체계

한국표분산업분류(KSIC)				카드매출 빅데이터
	분류코드		분류명	가맹점 업종분류
서울소비경기지수	G. 소매업	471	종합소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종합소매점 등
		472	음 · 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정육점, 청과물, 농수산물, 농가공산품 등
		473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가전용품,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등
		474	의복 및 섬유, 신발 소매업	남·여·기성복, 신발, 가방, 직물 등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가구, 인테리어, 악기 등
		476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운동 및 레저용품, 서적 및 문구, 완구 등
		477	연료 소매업	주유소, LPG가스, 가정용연료 등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약국, 화장품, 안경, 악세사리 등
		479	무점포 소매업	CATV상품판매, 전자상거래, 결제대행, 자동판매기,방문판매 등
	I. 숙박 및 음식점업	551	숙박시설운영업	호텔, 콘도, 모텔, 여관 등
		561	음식점업	일반대중음식, 제과점, 패스트푸드 등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커피전문점, 주점 등

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카드 가맹점 업종사례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 개요

- **서울소비경기지수**

시민생활에 밀접한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소비중심업종에 대하여 전체 또는 개별생산활동의 종합적인 파악을 위하여 업종별 부가가치를 가중치로 적용한 지수

- **데이터 :** 신한카드 카드매출 빅데이터
- **공간적 범위 :** 서울 및 5대 권역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종로, 중구,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마포

- **지수의 산식 :** 라스파이레스(기준시점 고정가중평균)산식
- **서울 및 각 권역의 가중치**

산업 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며, 해당 지역 산업별 기초가격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 각 권역의 지수는 해당 지역의 산업 가중치 합이 1로 산정된 독립적인 지수로 각 권역 증감률의 합이 서울전체의 증감률과 일치하지 않음 $\Sigma i wi = 1$, wi는 산업별 가중치를 의미 (기초가격 부가가치는 2015년 경제총조사 기준 인건비 + 영업이익 + 감가 · 대손상각비 + 세금과공과임)

- **지수종류 :** 경상지수 및 불변지수

- 경상지수 : 월별 매출액을 기준년도 매출액(2017년 평균)으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불변지수 : 경상지수 ÷ 디플레이터 × 100 (디플레이터는 업종별 생산자물가지수 활용)

- **기여도**

종합지수증감률 = Σi기여도i , 기여도i=(△하위지수i / △종합지수) × 종합지수증감률 , i는 각 산업을 의미
하위지수(산업 각 부문)가 종합지수의 증감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줌

유의사항

-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이하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소비중심 업종(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월간 소비지수이다.
- 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소비는 서울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약 30%로 소비경기의 핵심 요소이다.
- 서울소비경기지수의 장점은 매월 1억건의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서울 세부지역의 소비경기까지 모니터링 할수 있다는 것이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통계청의 '서울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벤치마킹하여 생산 측면의 매출액을 중심으로 지수가 구성되었으나, 분석대상인 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이 소비밀착업종임을 고려하여 지수의 명칭을 소비경기지수로 명명한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자료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통계청의 '서울 서비스업 생산지수'와는 지수의 공간 및 시간적 범위와 데이터 출처에 따른 표본이 서로 달라 두 지수의 방향 또는 증감율이 상이할 수 있다.
-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는 개인 및 법인이 이용한 신용·체크카드 소비를 서울지역에 소재한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집계한 것으로, 서울시민의 카드소비 뿐 아니라 서울외 지역 국민들이 서울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카드소비를 포함한다. 단, 무점포소매업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민의 소비(지출)로만 집계 하였다.
-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는 서울 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전체 매출의 약 16%로 추정된다. 카드사의 점유율 및 카드사용비율 변화에 따라 실제 매출액 대비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소지가 있으며, 카드 가맹점의 업종 변화 및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경상 및 불변지수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불변지수의 전년동월비를 중심으로 작성 및 분석되며, 설명절, 연휴 등의 월간 이동과 영업일수 변동, 그 외 불규칙 요인에 의한 효과가 분석결과에 포함되므로 해석 및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카드매출 빅데이터의 가공·조정·변환을 통해 산출된 지수로 신한카드 원본 데이터의 트렌드와는 차이가 있다.